

2017. 9. 4. [월]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2017년 09월 04일 (월)
26면 전곡



DMZ를 달린다

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 개막식에서 참가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성별·연령대 등 14개 종목에 걸쳐 열리는 대회에는 모두 1000여명이 참가했다.

/연합

21.2 X 12.1 cm

경인일보

2017년 09월 04일 (월)
15면 스포츠



DMZ 국제자전거대회 '힘찬 페달'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 개막식에서 참가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맹반

23.5 X 15.9 cm

늦여름 평화누리길 100km를 달리다 2017 DMZ 트레일 러닝 대회 성료

비무장지대(DMZ) 일원 평화누리길 100km를 사흘간 달리는 '2017 DMZ 트레일 러닝' 대회가 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김포·파주·연천 3개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트레일 선수와 동호인 등 약 1천500명이 참가했다.

100km 코스에 참가한 전문 선수들은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김포 32km, 연천 50km, 파주 18km를 달렸다.

100km 남자 부문 우승은 홍콩 출신의 웅호청(31)씨가, 여자 부문 우승은 미국 출신 마르시아 쉘(30)씨가 각각 차지했다.

동호인 대상 당일 코스(50·32·18km)와 입문자 코스(9km) 참가자들도 경기도 최북단 평화누리길과 DMZ 일원을 달리며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다.

이색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3일 '2017 DMZ 트레일 러닝' 대회 참가자들이 파주시 임진각을 출발해 달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안성시 소재 한겨레고교 철인3종경기 동아리 소속 학생들과 교사가 김포 코스(32km)에 도전해 다른 참가자들의 격려를 받았다.

해외에서 참가한 외국인 60여 명도 이목을 끌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폐회식 축사에서 "DMZ 트레일 러닝 대회가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14.7 X 9.6 cm



사흘간의 DMZ 대장정 마무리 3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2017 DMZ 트레일러닝 대회' 마지막 구간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파주시 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 정일형기자

17.4 X 11.3 cm